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4. 1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4/8~4/12)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3월 비농업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연준 통화정책 피벗 지연 우려에도 국내 증시 호조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소폭 상승 출발. 이어 미국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달러 방향성 제한된 가운데 경계심리 보이며 상승세 지속
- 중반, 국내 금융시장은 국회의원 선거일로 휴장
- 후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미국 3월 CPI와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경계감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 ECB 6월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에 달러 지지력 지속되는 가운데 비둘기적으로 평가된 한은 금통위 결과 반영하며 1370원대 중반으로 상승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52.2	1,375.5	1,352.1	1375.4	+23.2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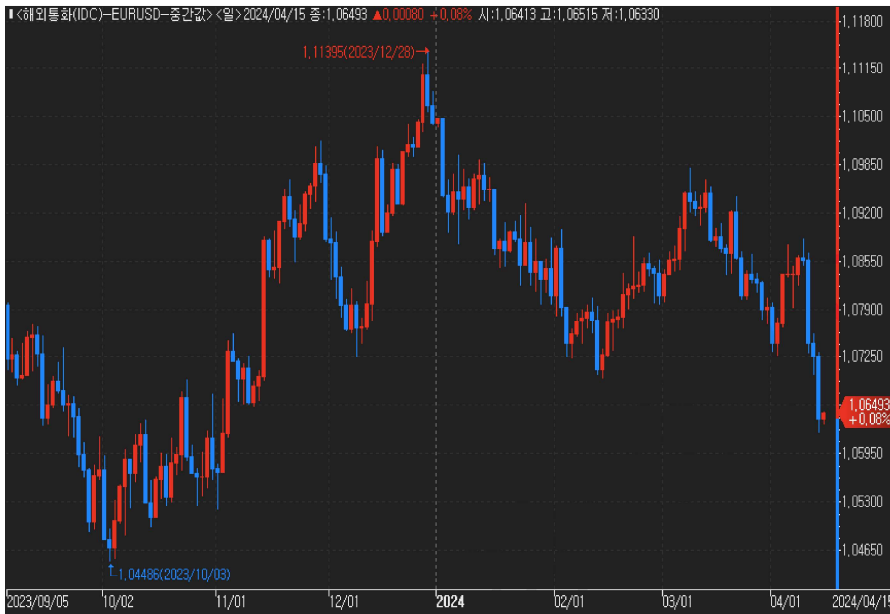
- 중등 리스크 확산에 따른 위험 회피 분위기가 달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호 보복 공습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증대와 인플레이션의 하락 제한 영향 등의 불확실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상기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연준 통화정책 지연 영향 등을 언급한 시카고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등 주요 연준내 인사들에 매파 성향 지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환율의 1,400원대 진입 등에 대해 국내 물가 급등 및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등이 상단을 다소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예상거래범위

1,370원 ~ 1,388원



엔·유로화 동향 (4/8~4/12)



유로화 동향

- 주초, 독일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경기 회복 기대감 나타나며 유로화는 소폭 강세 출발. 이어 미국 물가지표 대기하는 가운데 연준 대비 ECB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란 전망에 소폭 약세 전환
- 중반, 견조한 미국 CPI에 연준과 ECB 간 통화정책 차별화 우려 속 유로화는 큰 폭의 약세 시현
- 후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 결정 후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함에 따라 6월 인하론에 무게가 실리며 추가 약세. 이어 주 후반,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심리에 약세 압력 심화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37	1.0885	1.0623	1.0641	-0.0196

엔화 동향

- 주초, 미국 고용 호조로 인한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국채수익률 상승세 지속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달러당 152엔선을 앞두고 일본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높아지며 추가 약세는 제한
- 중반,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 상회하자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우려 속 미국 채금리 급등한 영향으로 급격한 약세 시현
- 후반, 일본 당국 관계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주요국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상대적 달러 강세 이어지며 추가 약세. 이어 주 후반,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 확산 가능성이 안전자산 선호심리 자극한 영향으로 엔화 가치 소폭 반등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1.6	153.4	151.6	153.2	+1.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4/8~4/1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시장 예상을 상회한 미 고용지표 영향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수급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국내 총선에 따른 휴장파 미국 3월 CPI 발표 등에 대비한 일부 포지션 정리 움직임 등으로 상승 추세 이어진 영국
- 후반 들어, 3월 미국 CPI가 전월보다 0.4% 상승세를 나타내며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며 3년, 10년 국고채 금리 모두 연고점 경신 이후 주 후반, 한은 금통위 결과가 도비시하게 해석된 영향 반영 속 전일 미국 PPI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밀들면서 아시아장에서의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 급락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3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견조한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미국 경제의 강건성 부각 등이 뉴욕 증시 상승을 견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 반영 등으로 코스피도 상승 출발. 이어 총선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강화 등으로 2,700대 후퇴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소외 업종 중심 반등세가 하방을 지지한 영국
- 후반 들어, 총선 후 발표된 미 3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아 금리인하 전망 크게 후퇴한 가운데, 국내 기관들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했으나, 이어 반도체 등의 업종 강세 전환 속 상승 전환 양상 시현. 주 후반, 미 3월 PPI가 둔화하고 고용시장이 여전 견조했음에도 금리인하 지연 추세에 미치는 영향 제한 속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부담 속 현물 매도 우위 등으로 2,700선을 내주며 마감